

뜨거웠던 여름은 가고... '에코힐링' 대전의 가을이 오네



대전 동구와 대덕구의 대청 호반길, 충북 옥천의 향수 100리길, 청원의 청남대길, 보은의 보은길을 잇는 대청호 500리 길은 총 200km의 거리를 자랑하는 도보 코스다. 사진은 대청호반의 모습.



계족산 황톳길에서 맨발의 즐거움.



전국 유일 호테마 공원 '뿌리공원'.



나의 뿌리를 찾는 호문화마을.

한국지방신문협회·TV조선 공동기획

대전 계절은 정지하다. 그 어느 때보다 사납던 여름이 지나니 어느 새 당연하다는 듯 가을이 다가왔다. 가을은 선선한 바람으로 불어와 목덜미에, 손끝에, 그리고 입술에 타고 흐르며 자신이 왔음을 알린다. 뜨거웠던 여름과 싸우느라 지쳤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고난의 계절을 지나온 만큼 가을은 더욱 풍성한 과실로 우리를 맞이할테다. 가을 초입의 대전 명소를 걸으며 그 넉넉함으로 오감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 신발을 벗고,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대전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보자.

대청호 500리길을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라면 대청호 500리 길은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천히 걷고 싶다면 '대청호 500리길'을 찾은 것이 정답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의 대청 호반길, 충북 옥천의 향수 100리길, 청원의 청남대길, 보은의 보은길을 잇는 대청호 500리 길은 총 200km의 거리를 자랑하는 도보 코스다. 21개로 나뉜 코스는 각 구간마다 특색이 뚜렷해 걷는 맛이 배가 된다. 가족과 함께 한다면 오토 캠핑장이 만들어진 1구간이 좋은 코스다. 1구간은 캐러밴 10대, 오토 캠핑장 40개, 공연장과 편의시설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대전 대덕구 이현동의 두메마을에 들러 몸에 좋은 산야초 효소, 토속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며 교육과 힐링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사진 애호가들이라면 풍광이 좋은 7구간을 추천한다. '부소무니', 환산 아래 연화부소형의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물위에 떠있는 산이기에 부소담악이라고 불린다. 코스도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부소담악길'이라고 불리는 7구간은 국토부와 한국 하천협회에서 뽑은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 '가장 아름다운 6대 하천'에 올라 있기도 하다. 아름다운 섬의 모양과 주변 경치 덕에 사진 애호가들로부터 사계절 내내 각광 받고 있다.

계족산성 가을 단풍 유명

◇맨발의 즐거움, 계족산 황톳길 =대전 '에코힐링(eco healing)'의 최고봉은 계족산 황톳길이다. 에코힐링은 환경을 뜻하는 'ecology'와 치유를 뜻하는 'healing'의 합성어로, 황톳길은 자연 속에서 힐링을 얻으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모두라고 있다. 조용태 맥키스 컴퍼니 회장이 지난 2006년부터 만들기 시작해 대전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황톳길은 해발 200~300m에 위치해 있다. 장동 산림욕장을 지나 600여m를 더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길이 시작된다. 황토가 뿌려진 길은 폭 2m에

달한다. 고운 입자의 황토가 발을 감싸 부드럽고 시원하다. 약 14.5km의 거리를 맨발로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치유가 된다. 전체를 둘러보면 4시간 정도 걸리지만, 짧게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코스도 있다.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사적 355호인 계족산성이 있다.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삼국시대에 지어진 산성은 성벽만 1037m, 높이는 10여m에 이른다. 내부에는 과거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물과 저수지 등의 흔적이 남아 있어 보는 맛이 쏠쏠하다. 특히 황톳길 중간마다 정자가 마련돼 있어 지친 다리를 잠시 쉴 수도 있다.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쉬다 보면 어느새 신선이 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족보박물관을 아시나요

◇호!월드에서 나의 뿌리 찾아보기 =대전에 왔다면 자신의 기원을 찾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대전 중구 안영동에 위치한 '호!월드'는 호 문화마을,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등 호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전통의 계승, 그리고 호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할 수 있어 체험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호!월드의 대표 명소인 '뿌리공원'은 전국 유일의 호 테마공원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성씨별 조형물이 마련돼있다. 사진도, 12지를 형상화한 샘물, 수변무대, 잔디광장 등도 있어 체험 학습을 하기에 아주 좋다. 지난 1997년 11월 개장한 뿌리 공원은 136개 성씨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상징이다. 각 문중의 특색에 맞게 세워진 조형물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인기가 높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공원 내부를 걷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한다.

뿌리공원 옆의 족보 박물관에서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록'을 모토로 내세우는 족보박물관은 2010년 4월 문을 열었다. 박물관은 족보들을 항상 전시해놓는 상설전시실, 특별전시가 열리는 기획전시실, 강당 등이 갖춰져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대전일보 전화기자



계족산 황톳길은 해발 200~300m에 위치해 있다. 장동 산림욕장을 지나 600여m를 더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길이 시작된다.



대전 중구 안영동에 위치한 '호!월드'는 호 문화마을,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등 호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